

GIST-포스코퓨처엠, 이차전지 맞춤형 인재 양성

- 3월 19일(수) GIST 행정동에서 임기철 총장, 홍영준 기술연구소장 등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
- 배터리소재 부문 인재 육성 위한 석·박사 과정 e-Battery Track 운영... 장학금 지급 및 현장 중심 교육 기회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포스코퓨처엠 연구개발 및 기술 인력으로 채용



▲ 3월 19일(수) GIST와 (주)포스코퓨처엠이 이차전지소재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주)포스코퓨처엠(POSCO Future M)과 이차전지소재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3월 19일(수) GIST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임기철 총장, 정성호 연구부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엄광섭 신소재공학과 교수 등 GIST 관계자와 (주)포스코퓨처엠 홍영준 기술연구소장, 남은실 인사문화그룹장, 김병환 연구기획그룹장, 박성흠 대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GIST와 (주)포스코퓨처엠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은 ▲이차전지소재 전문인력 양성 위해 GIST-(주)포스코퓨처엠 e-Battery Track 운영 ▲장학생 선발 시 학생 등록금, 장학금 및 교수 연구과제비 지원 ▲장학생 교육프로그램(사업장 견학,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원 ▲물적 교류 협력(보유 시설 및 기자재 유·무상 공동 활용) ▲산학공동연구 관련 협력(연구 교류회, 산학협력 세미나)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GIST는 이번 MOU 체결을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 하고 자체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주)포스코퓨처엠은 장학생에 대하여 학위과정 재학 중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 인력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과 주요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19일(수) GIST와 (주)포스코퓨처엠이 이차전지소재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임기철 총장, (주)포스코퓨처엠 홍영준 기술연구소장

임기철 GIST 총장은 “포스코퓨처엠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차원의 미래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영준 (주)포스코퓨처엠 기술연구소장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GIST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소재 기술을 선도하고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